

[98 JCC(예수공동체 축제: Jesus Community Celebration)]

특별새벽기도 /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15)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본문 요한복음 16:25-33] 하용조 목사 / 페이지수: 5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제가 오늘 간증한 박판제 성도님을 처음 만나서 얘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정말로 저는 이야기를 듣느라고 한 마디도 못했습니다. 요즘은 제가 몇마디 합니다.

얼마나 활달하시고 솔직하시고 재미있는 분인지 모릅니다. 자존심도 강한 분이십니다. 십년간 철저한 실업자의 생활을 하면서도 이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통해 정말 그를 낮추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항상 나라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 곳곳에 이런 분들이 있기에 나라가 서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지 않으면 안될 만큼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분이 예수 믿게 되는 과정을 통해 느낀 것은 '참으로 여자는 대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인께서는 그렇게도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기를 원하면서도 말씀을 전하지 못했는데 딸들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몇년을 오로지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예수 믿을 것인지 고민하면서 간구했습니다. 저에게 와서도 몇 번이고 꼭 아버지께 전도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런 기도를 좋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 질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딸들이 있다면 계속 기도하십시오. 시집가서라도 계속 기도하면 집안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비유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태양을 바로 볼 시력이 없을 때는 선글라스를 써야하는 것처럼 진리 자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비유로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비유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거울은 지금과 같이 깨끗하고 좋은 명경이 아니었습니다. 동으로 만든 거울이었기에 거울을 통해 보이는 자기의 모습이 어렴풋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영안이 열립니다. 사도바울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경험을 했듯이 영안이 열리고 자신의 내면의 세계가 진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신앙의 단계

26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하는 말이 아니니」

신앙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성경을 읽을 때는 톨스토이식 성경이 좋았습니다. '오른쪽 빵을 맞으면 왼쪽 빵도 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라, 대접받고 싶은 사람은 먼저 대접하라'는 식의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다른 것은 성경에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성경에서 '성령'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성경에 '성령'이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친구약을 통해 얼마나 많은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성령을 보기 시작하니 이제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문화와 역사와 사회 속에 있는 그저 나쁜 '악'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보니 마귀가 실재하고 귀신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자신의 신앙 수준만큼 보게 됩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성경의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처음에는 문자를 읽고, 그 후에는 뜻을 읽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성경을 바로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단계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양적으로 많을 때가 있고, 질적으로 높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교리로 머무는 때가 있는가하면 교리가 삶으로 변하는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언어나 생각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삶입니다.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말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들의 말은 쉽고 단순합니다. 그것이 내 손과 발과 삶으로 소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열리는 신앙

그 때, 즉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에 예수께서 비사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너희들이 직접 아니하시고, 이제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는 말은 기도하면 무조건 다 들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신앙의 단계에 들어서면, 신앙의 단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율법적인 행위나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들어서면 어렵던 신앙생활이 아주 쉬워집니다. 껍질을 벗기 전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중언부언하던 것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는 아주 기도가 쉽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힘들지만 스키를 잘 타는 사람에게는 스포츠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는 스키를 즐기는 즐거움과 여유가 있듯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고난을 겪을수록 그 고난을 유유히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광풍이 치면 다른 새들은 겁을 먹지만 독수리는 기류를 탈줄 아는 새이기에 광풍이 몰아칠 때마다 오히려 신나게 날아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이 비밀을 깨닫고, 이 관계를 알고, 이제 기도하면 고난 속에서 위로뿐만 아니라 능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도 성령 안에 있으면 단순한 위로의 말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 말이 고난 가운데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저 좋은 소리, 위로의 말로만 들리게 됩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너희의 떨리는 무릎을 강하게 하고, 나의 오른 팔로 너를 구원해 주고, 물속을 지나거나 불속을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도 성령 안에 있지 않고서는 쥐꼬리만한 위로의 말 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는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고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받으면 능력을 얻게 되고, 변화가 되며, 결국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곧 승리

27~28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심오한 메시아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해석해 준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이 본질로 돌아가시는 것이기에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늘이 눈에 덮힌 것처럼 진리를 볼 수 없었던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사랑하는 지도자가 떠났으니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심지어 승천할 때마저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가 죽으면 무슨 소용인가?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죽지 않아야지. 왜 보통사람들처럼 비참하게 죽는 것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던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여자들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도 여자들이었습니다.

비로소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가 되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토저의 말처럼 “아!”라는 감탄의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야 ‘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뜻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부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으며, 예수님의 피가 자신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관념적이 아니라 실제로 죄가 사라지고 마귀가 떠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으며, 그로인하여 뛰어나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

32절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평안과 기쁨과 승리의 근거로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요동하지 않으며, 아무리 슬퍼도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나 죽음이나 모두 혼자 감당하는 것입니다. 같이 누구와 나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슬퍼해 주어도 그 아픔과 죽음에는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죽음도, 고통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과 동반은 부활과 승리로 장식됩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함이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서는 ‘네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네가 죽을 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이미 너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병이나 실패나 자신의 한계나 허무와 좌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 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만나며,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마귀는 떠날 것이며, 질병과 실패와 좌절도 여러분 곁을 떠날 것입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